

'제2의 류현진' 꿈꾸는 윤석민

미네소타 트윈스가 점찍어 왔다



자유계약선수(FA)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우완 투수 윤석민(27·KIA)에 대한 미국 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 지역지 파이오니어 프레스는 30일(한국시간) '미네소타가 한국인 우완 윤석민을 점찍어 왔다'는 기사를 통해 미네소타가 윤석민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속팀 KIA 구단의 양해를 구하고 14일 미국으로 떠난 윤석민은 선발로 될 수 있는 메이저리그팀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올 시즌 선발 투수만 11명을 기용했을 정도로 마운드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미네소타는 이미 예전부터 윤석민에게 관심을 나타냈다.

파이오니어 프레스는 미네소타 구단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네소타가 윤석민을 영입하기 위해 적극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ML 미네소타 트윈스
연고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소속: 아메리칸 리그
올 시즌 성적: 중부지구 4위
주요 선수: 조 마우어 (올 시즌 타율 0.324)
주요 성적: 월드 시리즈 우승 3회



이 신문에 테리 라이언 미네소타 단장은 "윤석민에게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다.

국제 스카우터 하워드 노세터 등과 함께 매년 한국을 찾는 마이크 레드클리프 미네소타 부사장은 윤석민의 국내 및 국제 경기를 지켜본 뒤 "윤석민에게 큰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시즌 후 FA 자격을 얻는 덕분에 포스팅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다는 것과 올해 FA 시장에 나온 선

미네소타 지역 신문 보도 선발로 될 수 있는 팀 '딱'

수 중 가장 젊다는 것이 윤석민의 장점으로 꼽혔다.

다만 레드클리프 부사장은 윤석민의 어깨 통증을 언급하며 그가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발을 원하는 미네소타로서는 올 시즌 불펜에서 뛰던 윤석민이 다시 선발로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파이오니어 프레스는 윤석민의 올 시즌 성적과 함께 2011년 투수 4관왕을 차지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사실을 전하며 당시 172.10이닝 동안 삼진 178개를 잡아 이닝당 17개꼴로 삼진을 속이낸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윤석민의 투구가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올 시즌 직구 구속이 약간 줄었고, 슬라이더와 체인업으로 이를 만회했다고 적었다.

레드클리프 부사장은 "윤석민이 여전히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문제는 그가 얼마나 오래 던질 수 있는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윤석민

광주일고 '불방망이쇼'

동성고에 8-0 완승... KIA 타이거즈기 호남 교고야구 우승

광주일고가 제2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 지역 교고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일고는 30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동성고와의 대회 결승에서 8-0으로 완승을 거두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회관한 타력이 돋보였다. 광주일고는 1회에만 7안타로 5점을 만들어내는 등 장단 14안타를 몰아치면서 동성고를 압도했다.

마운드에서는 채지선(2년)의 호투가 눈부셨다. 1차전 승리투수 채지선이 결승전에서도 8이닝을 1피안타2사구6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며 팀에 우승기를 안겨줬다. 우승을 책임진 채지선은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돼 트로피와 글러브를 부상으로 받았다.

우승팀 광주일고에게는 우승기와 더불어 우승 트로피, 기념메달,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동성고)팀과 3위 2팀

(점음 인상고·순천 효천고)에게도 트로피와 기념메달, 야구용품이 주어졌다.

한편 이번 대회는 '미리 보는 2014시즌'이자 '야구인 가족 열전'으로 눈길을 끌었다.

광주, 전남·북지역 6개 고등학교의 1·2학년이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내년 시즌 각 팀 전력을 살펴볼 수 있는 무대가 됐다.

'야구인 가족'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채지선에 이어 9회 마운드를 밟은 광주일고 우완 김현준(1년)은 한화 좌완 유창식의 사촌동생. 올 시즌 KIA의 우선지명을 받은 효천고 차명진의 사촌 동생 차혜성(1년)도 모교 외 야수로 무등경기장을 밟았다.

동성고의 차세대 에이스 방건우(2년)와 역시 진흥고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최상인(1년)도 사촌지간이다. 이들은 각각 최혜식 해설위원의 외조카이자 아들이기도 하다. 고천주 송원대 감독의 조카 고수



광주일고 선수들이 30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기 결승에서 동성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환호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철(외야수), 신경호 대상초 감독의 아들 신범수(포수), 최인수 전 청원고 감독의 아들 최재현(내야수)은 동성고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진흥고 내야수 이경현은 학강초 최태영 감독의 차남이다.

◇개인상 수상내역
▲최우수선수상: 채지선(광주일고) ▲타

격상·최다타점상: 한두술(광주일고·0.625·5타점) ▲우수투수상: 최대한(광주일고) ▲최다안타상: 최지훈(광주일고·8개) ▲최다도루상: 김지민(동성고·3개) ▲수훈상: 송동욱(광주일고) ▲감독상: 방건우(동성고) ▲미기상: 신범수(동성고)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0일 제13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화정초 선수들이 박찬호(뒷줄 중앙)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화정초 제공>

화정초, 박찬호기 야구 우승

결승전, 부산 수영초에 4-3 승리

화정초가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정상을 밟았다.

화정초(감독 유종열)가 30일 충남 공주시립야구장에서 열린 제13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부산 수영초를 4-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학강초에 이어 화정초가 정상에 오르며 2년 연속 광주팀이 대회 우승기를 가져왔다.

3회 2사에서 화정초의 집중력이 발휘됐다. 화정초가 상대의 실책과 박지민·김지민의 연속안타를 묶어 3점을 뽑아내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5회에는 박지민이 솔로홈런을 날리며 한방을 과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화정초는 4-1로 앞선 5회 2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1점 차 승리를 지키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주장 정도훈이 우승의 주역이 됐다. 정도훈은 이번 대회에서 만루홈런을 포함 3개의 홈런을 때려내는 등 8할대의 타율을 기록하며 화정초의 '불꽃 타격'을 이끌었다. 5경기에서 39점을 만들어낸 화정초는 최소실점으로 마운드를 묶으며 우승을 이뤘다. 투수 박지민과 조병용을 앞세운 화정초는 5경기 7실점의 '잔물 투구'를 선보이며 막강 마운드를 선보였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 개막했으며 전국 32개팀이 참가해 우승을 놓고 6일간의 열전을 벌였다.



30일 서울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 올림픽대회 D-100 국가대표 임원·선수 기자회견에서 이규혁(서울시청)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이규혁, 이승훈, 모태범, 피겨 김연아 선수. /연합뉴스

피겨여왕 김연아 "신화 다시 한번"

소치올림픽 D-100 각오

"소치올림픽은 내게 두 번째 올림픽이아 은퇴 무대가 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즐겁게,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

'피겨 여왕' 김연아(23)가 30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의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D-100 국가대표 임원·선수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치올림픽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김연아는 몸의 회복 상태에 대해 "통증이 많이 사라져 이제 점프 연습도 소화할 수 있

는 상태"라고 밝혔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기록인 228.56점으로 한국에 사상 첫 피겨 금메달을 안긴 김연아는 이후 고민의 시간을 거쳐 소치올림픽을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만들겠다고 재도전을 선언했다.

지난 시즌 북극전에서 가법게 201.61점을 찍은 데 이어 올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밴쿠버 당시의 최고 기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18.31점을 획득, 올림픽 2연패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려

훈련에 매진하던 중 오른쪽 발등뼈 부상이라는 시련을 만났다. 다행히 빠르게 회복해 점프까지 소화 가능한 상태로 몸 상태를 끌어올린 만큼 김연아는 그랑프리 시리즈를 대신할 다른 대회에 나설 전망이다.

김연아는 "소치올림픽 전에 출전가능한 대회를 고민 중"이라며 "12월 중에 B급 대회 하나를 골라 출전할 것 같다"고 앞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을 설명했다.

국제 빙상경기연맹(ISU)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회 일정표에 따르면 12월에는 김연아가 이야기한 'B급 대회'가 세 차례 열린다.

지난해 출전한 바 있는 NRW트로피가 3일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개막하고, 5일 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크로아티아 자그레브)와 18일 우크라이나 오픈(우크라이나 키예프) 등이 치러진다.

아쉽게 공개가 미뤄진 새 시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연아는 "원래 쇼트에서 강렬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하고, 프리 스케이팅에서 서정적인 프로그램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프리스케이팅의 박자가 빨라지고 달리 많은 체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끝내나, 못끝내나

오늘 대구서 KS 6차전... 두산 니퍼트·삼성 밴덴헐크 선발 대결

한국시리즈 우승에 1승만을 남겨놓은 두산 베어스와 2승째로 추격을 시작한 삼성 라이온즈가 6차전 승부의 선발을 이방인 투수들에게 맡겼다.

두산과 삼성은 31일 오후 6시부터 대구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에 오른 투수 더스틴 니퍼트(32·미국)와 릭 밴덴헐크(28·네덜란드)가 각각 선발 등판한다고 30일 예고했다. 25일 열린 2차전 때 한차례 맞붙은 적 있는 둘은 다시 대구구장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니퍼트는 2차전 때 6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각각 3개만 내주며 무실점으로 삼성 타선을 틀어막는 등 밴덴헐크와 피 말리는 투수전을 펼친 끝에 두산에 2승째를 안겼다.

2011년부터 두산 유니폼을 입은 니퍼트는 올해 12승4패를 거두는 등 세 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쌓으며 통산 38승20패, 평균

자책점 3.05를 기록한 에이스다.

니퍼트는 올해 개막전을 포함한 삼성전 3경기에 선발 등판해 모두 승리투수가 됐고, 평균자책점 1.89(19이닝 4자책점)를 기록할 만큼 투구 내용도 좋았다.

밴덴헐크는 2차전 때 5.2이닝 동안 삼진을 7개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볼펜진 방위에 야수 실책까지 겹쳐 팀의 패배를 지켜봐 왔다.

앞선 경기에서 시즌 중 선발로 뛴 차우찬을 활용, 선발 1+1 작전을 짜던 삼성은 이번에도 밴덴헐크의 바로 뒤에 톱릴리프를 불러 마운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2002년 플로리다 말린스에 입단한 밴덴헐크는 볼티모어, 피츠버그 등을 거치며 6시즌 동안 8승11패와 평균자책점 6.07을 남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출신으로 한국의 가을 야구는 처음이다.

/연합뉴스